

양촌선생 “주역천건록” 해제

이 광 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시설(詩說)

9

<하피농의(何彼穠矣)>에서 ‘왕희(王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는 무왕 이후의 시다. 그러나 무왕 때라면 아(雅)에 들어가야 하고, 평왕 때라면 ‘왕풍(王風)’의 <서리(黍離)>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남(二南)’에 있더라도 ‘주남’에 있어야 하거늘, 지금 ‘소남’의 끝에 있으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광>과 <여분>은 남국의 시이면서도 ‘주남’에 들어갔으니 천하가 차츰 화평해짐을 알 수 있다. <하피농의>는 왕조(王朝)의 시이면서도 ‘소남’에 있는 것은 또한 왕도의 교화가 크게 행하여져 마침내 온천하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분>에서 ‘왕’이라 칭한 것은 ‘은(殷)’으로 ‘주(周)’ 교화가 천하에 두루 미치지 못했지만 차츰 화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하피농의>에서 ‘왕’이라 칭한 것은 ‘주’이다. ‘주’의 교화가 천하에 크게 두루 미쳐, 천하가 이미 이상적으로 다스려지게 된 것이다.

‘주남’은 안방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미쳤으며, ‘소남’은 천하에서 시작하였으나 안방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각기 왕도를 행하는 이의 상서로운 조짐, 즉 인간의 힘으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열거하여 끝을 맺었으니, 이로써 그 뜻을 본다면 타락 통한다. 예컨대 그 시대를 두고 따진다면 ‘아(雅)’에 있지, ‘풍(風)’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시에서 다만 ‘평왕(平王)’이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왕풍’의 <서리> 뒤에 둘 것인가? 공자가 이 시를 ‘소남’에 올려 놓은 것은 비록 왕도는 쇠하여 어지러운 시대라 하더라도 정시지도(正始之詩)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취하여 정풍

(正風)에 붙인 것이다. 첫째는 문왕과 태사의 교화가 한 시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천하 후세에 미쳤음을 보여 준 것이다. 둘째는 후세의 임금들이 진실로 자기 자신과 가정부터 바로잡을 수 있다면 변하는 자들이 바른 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가르침을 베풀 뜻이 깊다.

10

<추우(騶虞)>는 봄 사냥 때 금수초목(禽獸草木)이 번성한 것을 보고 그 어짐이 만물에 미쳤음을 찬미하였으니 이는 추우의 성품이 매우 어질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전(戰)’은 곧 사냥인데 짐승을 죽이면서 “한 번 화살을 쏘아 잡혀지 다섯 마리를 잡노라”고 하였으니, 그 손상시키는 바가 또한 많다. 그런데도 매우 어질다고 한 것은 어째서 인가? 성인은 만물에 대하여 이들을 사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들을 사용하면서 절도가 있다. 늘 ‘불인지심(不忍之心 :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감히 아무 까닭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어진 은혜가 만물에까지 미쳐서 만물이 많이 번성하여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에 바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짐승을 잡아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만물을 번성하게 키위 사용하는 곳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물며 금수(禽獸)가 많은데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위험을 주어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계절에 따른 사냥의 예식을 때에 맞게 거행하는데, 사냥하여 죽이고 몰아서 내 쫓아 그 해를 제거한다. 금수의 종류가 매우 많아지고 번식이 매우 왕성하게 되었는데도 만약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힘없는 짐승들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소모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은 사람의 몸을 잡아먹을 것이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단(異端)의 학문은 인간의 도리를 끊어 없애면서 금수에게는 해를 가하고 자 하지 않는다. 인류(人類)를 차츰 줄이고 금수를 더욱 늘리려고 하니, 이는 짐승을 몰아서 인류(人倫)을 해치는 것이다. 후세의 잔인한 사람들은 오직 입맛과 배를 불리기 위하여 그물을 치거나 배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하여 짐승을 잡는다. 반드시 짐승을 모조리 사냥하여 그 육식을 채우고 자 하는 자는 어질지 못한 행실이 쌓여 반드시 재앙이 미치니, 왕조(王朝)가 단명하고 후사가 끊어지는 것도 더러 이런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이 인류를 해치고 후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짐승을 잡는 것은 모두 성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1

<한광>과 <여분>은 남국(南國)의 시로 ‘주남’에 붙어 있다. ‘집전’에 “국중(國中)에서 채집한 것은 남국의 시와 섞어 ‘주남’이라 하고, 남국에서 채집한 것은 그냥 ‘소남’이라 한다”고 했다. 아마 이는 <한광>·<여분>은 비록 남국에서 지어진 시기는 하지만 남국에서 채집하여 바치기 전에 먼저 국중에서 채집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유씨(劉氏)는 ‘남국의 시가 국중의 시에 섞였다’고 하였는데 잘못이다. 그러나 ‘집전’에서는 또 “<한광>·<여분>은 남국의 시로 ‘주남’에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한광>·<여분>은 국중에서 채집한 장소 때문에 국중의 시에 붙인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화가 온 세상에 미쳤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다만 남국에서 바친 시 가운데서 이 두 시만을 가져다 ‘주남’에 붙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져다 붙였다면 어찌 이들 두 시만이었겠는가? 주자의 삶은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道心·人心’ 두 가지가 모두 ‘근발’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한 의도는 ‘道心’과 ‘人心’을 조화되지 않는 대립물로 볼 수 없음을 설명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시는 스승인 차潛臺가 말한 “人心과 道心이 아직 발하기 전에 이미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여 발생하였다.”라는 양극대립적인 과정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절대적인 대립관점은 마치 程頤가 “人心은 私欲이니 그러므로 위태롭고, 道心은 天理이니 그러므로 精微하다. 사육을 없앤 즉 천리가 밝아진다.”(程氏遺書「卷24」)라고 말한 결론에서 도출해 낸 것이다. 따라서 도심, 인심과 천리, 인욕 등을 동일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인심을 소멸시켜서 도심을 보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朱子는 만년에 이르러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대립의 관점을 바로잡아서 “人只有一個心”을 강조하였으니, 즉 知覺之心이다. 이른바 “此心之靈, 其覺于理者道心也, 其覺于欲者人心也, 如何去得?(同上西, 卷82)”이다. 권씨 부자는 朱子의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먼저 권득기는 “人心道心, 以俗語言之, 則欲善之心爲道心, 寒衣飢食之心爲人心, 此非二心也, 聖人偶分別言之耳, 寒衣飢食, 本非惡心, 易流於惡, 故曰危, 若本惡心, 則聖人豈但危字耶!”(晚悔集「卷2」)라 하였다. 권시는 “氣稟理賦의 性이 가리키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처음부터 二性은 아니요, 人心道心の 理도 渾然一本으로서 二體가 아니다.”(炭翁集「卷11」朋友見警職)”라고 하였고, 또 “人心은 氣稟의 性에서 나왔고, 道心은 원래 理賦의 性에서 근원한다. 이 二性은 하나요 二物이 아니다.(同上書, 卷11 隨感自警職)”라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사람에게서 는 도덕이상 뿐만아니라 감성적인 물질욕망이 있으므로,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그 감성적인 물욕의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24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인종에 대한 성복(成服) 결정 다음날 7월 6일에 중종과 계비(繼妃) 문정왕후 윤씨(尹氏)의 소생인 경원대군이 12세로 경복궁 근정전에서 등극(명종)하고, 문정왕후가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때에 중국 북송 때 철종(哲宗:신종神宗)의 6째 아들로 황태자, 모후는 朱皇后(후황후)이 10세로 즉위(1085년 12월)하였는데, 할머니인 태황태후 선인왕후(宣仁皇后:신종의 모후) 고씨(高氏)가 수렴청정 한 것을 참고하였다. 송나라 선인황후, 조선의 명종 때 문정왕후, 순조 때 증조모벨인 정순왕후(貞純王后:영조의 계비) 김씨(金氏) 등의 섭정은 외척세력의 발호와 개혁정치의 실패 및 기록권 세력의 보수반동화로 끝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경계로 몰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교훈을 참고할 만하다.

충재 선생은 7월 20일 당시 빈전도감 제조(殯殿都監提調)로서 총호사(摠護使:국상에 대한초종의식을 총 지휘하던 임시벼슬) 류관(柳灌)으로 하여금 왕대비(공의대비恭懿大妃) 인성왕후(仁聖王后:인종왕후)에게 아뢰기를 “의재공(外樞樞:왕과 왕후의 관을 담는 관) 안에 대행왕(인종)의 유의복(遺衣服:생전에 입던 옷)을 추납(進納:추가로 넣음)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문에 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종 선대에서 하신던 것도 아니고, 다만 세조(世祖)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뒤 예종·성종 조에서는 모두 폐지하고 하지 않았다가 정현왕후(貞顯王后:성종의 계비, 중종의 모후) 때에 다시 광묘(光廟:세조)의 예에 의하여 하였고 중종 때에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지만 불륜이 이미 불가하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찌 재차 오류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행왕의 유교에도 상사(喪事)는 오로지 예문에 따라서 하라는 말밖에 있었으니, 이 일은 하지 마소서.”라고 하니,

답하기를, “예는 분시 그렇다 하더라도 정은 무궁한 것이다. 비록 이 몸을 순장(殉葬)한다 해도 내 마음은 오히려 미진하게 여기는데 더구나 이 일은 근

년에 다 하던 것인즉, 지금 유복 정치한다면 또한 박하지 않은가. 나는 실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유관 등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권벌(權機)이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변하기를 ‘예에 시신에 입히고 관(棺)에 넣는 것은 반드시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관(槨)에 붙인다는 예문은 듣지 못했다. 더구나 송송(送終)의 대사인 데이겠는가. 전적으로 예문의 절목(節目)만을 써야 하는 것이요, 결코 이같이 그릇된 일을 하여 후세에 기풍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옛날 성인(聖人)이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으면 예로써 장사하고 예로써 제사한다.’ 하였으니, 예의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이 중대한 것이며 대행왕의 오로지 예문에 따라 하라는 유교 역시 지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체 예문에 따름으로써 유교를 준행한다면 대행왕의 성덕(聖德)이 더욱 광명하게 드러날 것이요, 송종의 도리에도 길이 유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차 후세에 모범을 전하여 보일 수도 없으리니와 도리어 대행왕의 진선진미(盡善盡美)하신 덕에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위로 유교를 따르시오 아래로 여정(興情)을 따르시오 결단코 이 비례(非禮)를 행하지 마소서.”라고 하니,

답하기를, “비록 무익한 줄 알면서도 꼭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한 정이 그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들이 예설(禮說)로 바로잡음이 정녕하여 재차 되니 부득이 힘써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충재 선생은 7월 22일에 원상으로서 당시 왕대비(공의대비恭懿大妃)인 인성왕후(仁聖王后:인종왕후)의 전(殿)에 나아가, 이때 대비가 지극히 애통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여 수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를 깊이 근심하여 왕대비전에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뜰간대 위에서 전혀 어선을 진어하지 않으신다 하니, 매우 민망하고 우려됩니다. 비록 한 몸은 야기치 않으신다 하더라도 어찌 한 나라를 돌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행 성상(인종)께서 슬픔이 지나쳤던 탓으로 3년의 효행(3년상)을 마치지 못하셨으니 조야(朝野) 신민(臣民)의 애통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서도 갑절이나 지

나치게 슬퍼하시는데 또 약으로 구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다면 국가의 일이 종당에 어찌 되겠습니까. 중종 대왕 상릉의 역사가 있으면서부터 얼어 죽은 백성이 많았고 중국 사신이 오는 데 미처서는 굶어 죽은 계군(橫軍)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 공사 간에 힘이 이미 탕진되었습니다. 더구나 대행 왕께서는 승하하실 때에도 오히려 창생의 고통을 염려하셨으니 과연 그 유의(遺德)를 잇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힘써 스스로 보충하시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으시으로써 일국 신민의 간곡한 소망을 위로하소서.”라고 하니,

답하기를, “국사와 민폐를 내 또한 어찌 염려하지 않겠는가. 자전(齋殿:문정왕후)께서 계속 음식을 권민하시므로 기력은 평상이니 다시 묻지 마라. 마음에 매우 미안스럽다.”라고 하였다.

7월 25일에는 충재 선생이 어린 임금 명종을 잘 이끌어서 명군(明君) 되도록 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10조목을 의정부 대신들과 함께 진달하였다. 즉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유관, 좌참찬 이언적, 우참찬 권벌, 좌참찬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등이 임금이 처음 즉위하였다 하여 10개 조항의 경계문을 올렸는데, 2통으로 나누어 썼다. 하나는 인문으로 풀어서 자전에게 올리는 것이었고 하나는 대전(大殿:명종)에게 올리는 것이었다.

그 글에, “지금 주상께서 어린 나이로 보위를 계승하셨으니 그 보양(輔養)이 가장 급한데, 보양의 근본은 바로 자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 성현은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또한 교도하는 방법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문모(文母: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의 태교(胎教)와 맹모(孟母:맹자의 어머니)의 속임이 없었던 행적이 너무나 소연하게 옛사람의 교훈에 나타나 있으니, 고금의 자모(慈母)는 미상할 같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현성(賢聖)하게 하려는 마음을 누군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낳기 전에 미리 가르치고 세 번씩 거처를 옮기면서 올바르게 교양하는 일도 오히려 했는데, 더구나 지금 주상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고명하고 기도(氣度)가 속성하십시오. 대행 성상(인종)께서 슬픔이 지나쳤던 탓으로 3년의 효행(3년상)을 마치지 못하셨으니 조야(朝野) 신민(臣民)의 애통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서도 갑절이나 지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만화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2. 主性善

권씨 부자는 다른 성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맹자의 성선론을 주장하여 사람의 천부적인 본성 즉 이른바 ‘本然之性’ ‘天命之性’을 근본으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凡言性者, 必須言本言之性 孟子之言性善是也” “生之理, 渾然之善, … 人得此至善之理以成其性也 此即性善之義也.(晩悔集·僞疑」卷3)”라 하였고, “心如冰也, 心之成善, 水之性下”(炭翁集」卷11 隨感自警職)이라 하였다.

권득기는 또한 ‘至善’이 “天理常使, 無一息間斷”하므로 사람의 ‘善心’은 부단히 萌生(萌生)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선심을 가득 길러 “此心生出不窮”하며 “如天之不息以自疆也(晩悔集·僞疑」卷3)”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천부적인 ‘善心’을 “天地生物之心”이며 만물의 본원으로 여겼다. 이는 바로 ‘至善’한 도덕이성을 우주본체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사람이 만약 이 ‘善心’을 “擴而充之”한다면 즉 “可以遷善改過, 他日之爲聖賢亦甚乎是, 不然私復猶矣(同上)”할 것이라고 여겼다. 여기에서 권득기가 이같이 ‘至善’의 도덕이성을 제창한 목적이 사람의 도덕적인 자각을 일으켜

‘善心’을 기르도록 그래서 좋지 못한 사육을 제거하여 “遷善改過” “爲聖爲賢”에 이르게 한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권씨 부자는 비록 性善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惡’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아울러 또한 ‘惡’에 대해 자기의 정의를 내렸다. 그들은 人性 가운데 ‘惡’이 있음을 인정하여 “既曰惡, 亦不可不謂之性(同上)”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惡을 다른 것이라 여기지 않고 “只善之不足之處, 間斷處, 미유소편이過不及處, 便是惡 非原有善惡二端變併而生也.(同上)”이라 하였다. 권시는 또한 “所謂惡者本非惡, 但過與不及便是耳.”(炭翁集」卷11 朋友見警職)”이라 하였다. ‘惡’은 오히려 ‘善’과 대립되어 세워진 성그들의 의도는 ‘中道’라는 사물을 측정하는 최고 표준과 행위준칙을 거쳐 자각해서 ‘至善’의 도덕이성의 실현을 관철시키는데 있었다. 바로 炭翁 권씨가 말한 바 “言之中節, 若是其難哉! 只在理明而心正耳!”(炭翁集」卷11 隨感自警職)가 그것이다.

3. 道心·人心

권씨 부자는 심성론에서 “道心·人心”의 ‘已發’적인 것, 즉 의적으로 나타나는 주체의식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우선 그들은 ‘道心·人心’과 ‘未發·已發’의 관계에 대하여 주자의 관점을 찬성하고 ‘道心·人心’ 두가지는 모두 ‘已發’을 가리키는 말이며 ‘未發’이 ‘道心’이고 ‘已發’이 ‘人心’인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

성인들의 사상



(지난호 이어서)

58세에 “주자서절요” 및 “자성록”을 거의 완결지어 그 서(序)를 썼다. 59세에 황중거(黃仲舉)에게 답해 “백록동규집해(白鹿洞規集解)”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대승(奇大升)과 더불어 사단칠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였고, 61세에 이언적(李彦迪)의 “태극문변(太極問辨)”을 읽고 크게 감동하였다.

68세에 선조에게 ‘무진옥조소’를 상서했으며, ‘사집’·“논어집주”·“주역”·‘서명’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고간 학구의 만년의 결정작인 “성학십도”를 작하여 왕에게 헌상하였다.

‘무진옥조소’의 내용은, 제1조 계통을 중히 여겨 백부인 선제(先帝) 명종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筭

에게 인효(仁孝)를 온전히 할 것, 제2조 시신(侍臣)·궁인의 참언(讒言)·간언(間言)을 두절하게 해 명종공(明宗公)과 선조공(宣祖公)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게 할 것, 제3조 성학(聖學)을 돈독히 존중해 그것으로서 정치의 근본을 정립할 것, 제4조 인군(人君)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도술(道術)을 밝힘으로써 인심을 광정(匡正)할 것, 제5조 군주가 대신에게 진심을 다해 접하고 대간(臺諫)을 잘 채용해 군주의 이목을 가리지 않게 할 것, 제6조 인주(人主)는 자기의 과실을 반성하고 자기의 정치를 수정해 하늘의 인애(仁愛)를 받을 것으로, 시무 6개조를 극명하게 상주한 풍격(風格) 높은 명문이다.

“성학십도”는 제1도 태극도(太極圖), 제2도 서명도(西銘圖), 제3도 소학도(小學圖), 제4도 대학도(大學圖), 제5도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제7도 인설도(仁說圖), 제8도 심학도(心學圖), 제9도 경재잠도(敬齋齋圖), 제10도 속흥야재잠도(夙興夜寐齋圖)와 도설(圖說)·제사(題辭)·규약 등 부수문(附屬文)으로 되어 있다.

제1도는 도와 도설이 모두 주돈이(周敦頤)의 저작이며, 제2도의 ‘서명’은 장재의 글이고, 도는 정복심(程復心)의 작품이다. 제3도의 제사는 주희의 말이고, 도는 “소학”의 목록에 의한 이황의 작품이다. 제4도의 본문은 주희의 ‘대학경(大學經)’ 1장(章)이고, 도는 권근(權近)의 작품이다. 제5도의 규약은 주희의 글이고, 도는 이황의 작품이며, 제6도의 상도(上圖) 및 도설은 정복심의 저작이고, 도는 이황의 작품이다. 제7도는 도 및 도설이 모두 주희의 저작이고, 제8도는 도 및 도설이 모두 정복심의 저작이며, 제9도에서 잠은 주희의 말이고, 도는 왕백(王柏)의 작품이며, 제10도의 잠은 진백(陳柏)의 말이고, 도는 이황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제3·5·10도와 제6도의 중간 하도(下圖) 등 5개저는 이황의 독자적인 작품이고, 나머지 17개저는 상기한 선현들의 저작이다. 그러나 이들 유학 사상의 정수는 이황에 의해 독창적으로 배치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됨으로써 생명 있는 전체적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다음호에 계속)